

## 자영업 종사자의 소득분포 분석\*

고 영 우\*\*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격차 수준은 어떻게 다른지를 소득분위별로 추정해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학술대회용) 자료를 이용하였다.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의 차이를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격차가 저소득층에서는 음(-)의 수준이고, 고소득층에서는 양(+)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4년동안 저소득층의 소득격차는 확대된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격차는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소득격차 확대보다 고소득층의 소득격차 축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소득격차 확대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남성의 경우에는 고소득 비임금근로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저소득 비임금근로자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들은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구원간 근로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은 여성이기 때문에, 가구내 근로형태의 조합 및 그에 따른 가구소득 총액 등을 함께 고려한 정책설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주요용어 : 비임금근로, 소득분포,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 1. 서 론

한국은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그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었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임금근로자와 다름없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특히 영세 자영업자 보호와 관련한 주제 등이 최근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은 취약한 노동시장적 지위와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남성은 보통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가 되지만 여성의 대다수는 무급가족종사자로서 비공식적으로 사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간주될 뿐 온전한 근로자로서

\* 본 논문은 김근주 외(2019) 『여성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황과 정책적 개선 방안』 중 제3장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며, 2019년 한국노동패널(KLIPS)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대우와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취업이 어려운 여성들이 자영업(고용주 및 자영자)으로 뛰어 들고 있지만, 남성 자영업자보다 훨씬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체를 이끌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임금 노동시장에서 겪는 여성들의 일자리 불안정성과 빈곤은 비임금 노동시장의 여성들에게도 예외 없이 만성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19 위기가 비임금근로자에게 미친 영향도 성별로 상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소득격차 수준은 어떻게 다른지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4년(2018~2021년)동안의 변화에 집중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가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 및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격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영향이 성별로는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비임금근로 선택 및 소득수준 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고, III장에서는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시간당 소득액의 차이를 소득수준별로 추정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방향 등을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인가의 결정과 함께 어떤 취업형태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노동경제학의 고전적인 연구주제이지만, 비임금근로 선택에 관한 분석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비임금근로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특히 비임금근로와 임금근로 간의 선택 결정요인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비임금근로 선택에 관한 연구들이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요인분석과 연계되어 수행되었다.

금재호 외(2009)는 출산 및 미취학아동의 보육이 비임금근로 진입에 미치는 효과를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수와 자녀의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그것이 비임금근로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동일한 분석방법을 미국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따르면, 근로자의 성별이 비임금근로 종사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7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비임금근로 종사확률이 7%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 임금근로보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유연한 비임금근로를 선택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7세 이하 자녀가 1명 증가할수록 여성의 비임금근로 종사확률은 약 4.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자녀의 나이를 세분한 결과, 3세 이상 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지 여부가 비임금근로 종사확률을 10.6%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하게 분석한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결과는 비슷하게 도출되었다. 이로써 비임금근로로의 진입은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공급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유연노동공급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특히, 영유아기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임금근로자보다는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비임금근로 종사를 선호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들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를 가진 여성 임금근로자의 유연노동공급은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 더 제한적이며, 출산·육아로 인한 생애경력단절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출산·육아가 비임금근로 진입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4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류재우(2004)의 연구는 이 기간 동안 비임금근로 비중의 증가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득수준과 소득분포의 변화, 소득결정요인의 변화, 신규진입자의 특성에 관한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비임금근로 부문은 소득수준 및 소득 분산(분포) 등의 측면에서 ‘직업’으로서의 매력력이 표본기간동안 증대되었으며, 자영자의 숙련수준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음(-)의 선택성이 축소 또는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임금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하락 없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며, 그 근거로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가 임금근로 부문에서의 소득기회 감소라는 방출요인보다는 비임금근로 부문의 흡입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전병유(2003)는 경제활동참가와 비임금근로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비임금근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활동참가와 비임금근로 선택의 추정치를 얻은 후,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방법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와 비임금근로 선택에 관한 inverse Mill's ratio를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편의항을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함수를 추정하는 2단계 과정에서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선택에 따른 선택편의를 조정하는데 활용한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얻어진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의 선택에 따른 소득 기회의 차이를 비임금근로 선택의 구조모형에 포함시켜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 또는 직업경험과 같은 인적자본은 남성의 비임금근로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경험이 비임금근로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의 소유 여부는 고용주 선택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 자산 소유에 따른 소득은 비임금근로 선택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업률과 비임금근로의 선택 사이에는 대체로 정(+)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비임금근로가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소위 ‘밀어내기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미(2002)는 여성의 경력단절 가능성이 비임금근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주 및 자영자를 비롯하여 18시간 이상의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패널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여 1차년도(1998년)에 노동시장에 취업해 있던 여성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노동공급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다항로짓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노동공급 변화유형은 노동시장 퇴장, 근로시간 증가, 그리고 근로시간 감축 등의 세 가지이다. 분석 결과, 어린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자녀보육의 보조자가 있는지 여부는 여성의 취업선택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임금근로 선택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및 어린 자녀수의 증가는 노동공급 변화에 있어서 노동시장 퇴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근로시간 감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는 노동시장 퇴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로시간 감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확률은 낮다는 것으로 보여주지만,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것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임금근로 선택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만, 선행연구에서 많이 검토된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횡단면 측면에서 남성의 비임금근로 선택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비임금근로 선택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금재호 외, 2009; 김기승, 2006; 전용석·김두순, 2004; 성지미, 2002; 문유경, 2002).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남성은 비임금근로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금재호 외, 2009; 류재우·최호영, 1999). 본 장에서는 이처럼 인구학적 변인이 비임금근로 선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이미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제시된 결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함과 동시에, 연령이나 학력, 혼인상태 등의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비교분석할 것이다.

금재호 외(2003, 2009), 성지미(2002)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모형에 추가하여 여성의 비임금근로 선택은 여성이 노동공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노동공급(flexible labor supply)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본 장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일·가정양립 부담이 비임금근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6세미만 자녀수' 변수와 더불어 '6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수'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한편, 문유경(2002)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비임금근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의 총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배우자(남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비임금근로 선택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금재호 외(2009)에서는 가구의 전체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비임금근로 선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가구소득에 따른 비임금근로 선택의 효과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생활비' 변수와 '배우자의 소득' 변수를 사용하여 본인의 비임금근로 선택이 가구 전체 및 배우자의 경제수준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취학 자녀 및 취학 자녀의 수와 가구 및 배우자의 경제수준이 여성의 비임금근로 진입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횡단면 분석에서의 결과를 기초로 비임금근로 진입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체 생애 중 절반 이상을 기혼상태로 살아가는 바, 자녀의 출산 및 육아가 여성에게 생산성 저하와 더불어 노동시장내 차별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모성임금 패널티'가 성별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몇몇 선행연구들은 시장노동과 가사노동 사이의 시간배분에 근거하여 결혼 및 자녀양육과 기혼여성 비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소득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Fields, 1987; Hundley, 2000). 이 중 비임금근로자의 소득과 근로시간에 초점을 맞춘 Hundley(2000)의 연구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녀양육 등으로 받

생하는 가정생산에 대한 시간요구가 증가할 때 임금근로자보다 용이하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가용성의 정도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정생산시간과 시장근로시간의 상호교환을 분석한 Hundley(2001)의 연구에서는 비임금근로에서의 근로시간 유연성은 육아 등의 필요에 따라 시장노동시간을 감축하고 가정생산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임금근로자에 비해 근로소득이 적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임금근로 선택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근로시간의 조정이 보다 유연한 기혼 비임금근로 여성이, 남성 비임금근로자와는 달리, 결혼 및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변화가 있을 때 본인의 근로시간을 감축함으로써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분석한 연구들은 다소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복순(2014)은 비임금근로 가구의 소득 및 빈곤 실태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비임금근로 가구의 소득 수준은 임금근로 가구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비임금근로 가구와 임금근로 가구의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에 상관없이 비임금근로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낮고, 남성 비임금근로 가구주와 남성 임금근로 가구주 사이의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확대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 비임금근로 가구주와 임금근로 가구주 사이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반면, 다른 연령계층에서는 두 집단간 소득격차가 다소 완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50세 이상 가구주의 처분가능소득을 종사상 지위별로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와 상용직 사이의 소득격차가 약 20%가량 확대되었다.

반면, 최강식 외(2005)의 연구는 비임금근로 부문의 소득결정요인 및 소득분포를 임금근로 부문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 반면, 시간당 임금을 종속변수로 분석하면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비임금근로에 종사하는 여성의 평균 근로시간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강식·정진화(2004) 연구에서도 성별에 상관없이 비임금근로자의 시간당 근로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더 높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두 집단간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사이의 소득격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여성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소비자 차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것이 여성 임금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고용주에 의해 받는 차별(가격 차이) 이상이라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위직종일수록 차별이 줄어드는 반면, 비임금근로 부문에서는 직업에 상관없이 상당한 정도의 차별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소득격차 수준은 어떻게 다른지를 소득분위별로 추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4년(2018~2021년)동안의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가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 및 임금근로자 대비 격차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분석

비임금근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비임금근로를 선택하는지, 즉 비임금근로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비임금근로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가족의 배경, 직무만족도, 그리고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에 직면하였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일련의 연구들은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적 특성이 임금근로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서, 비임금근로자, 특히 고용주 또는 자영자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보다 위험을 더 선호하는 특성을 지니거나 능력 자체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보다 능력이 떨어져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임금근로를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오히려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갖춘 뛰어난 능력자가 비임금근로를 선택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매우 이질적(heterogenous)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의 편차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해서도 집단내 편차가 큰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류재우, 2004). 따라서 평균에서의 효과를 추정하는 고전적인 회귀분석(classical regression analysis) 방법론을 활용한 분석으로부터 다양한 특성을 갖는 비임금근로자 집단의 소득결정요인과 소득분포를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최근 소득불평등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비임금근로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 1. 분석방법: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개인의 이질적 효과를 통제한 조건부 분위회귀분석(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모형을 사용하면 전반적인 소득분포에 미치는 총량 효과를 추정하기 어렵다. 조건부 분위회귀분석 모형에서의 추정결과는 통제변수들이 모두 통제된 유사집단의 소득분포 효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의미만 부여될 수밖에 없다. 반면, Firpo et al.(2009)의 연구에서 제시된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모형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전체적인 소득분포에 미치는 총량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 분석에서와 같이,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변화가 무조건부 소득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로 한계적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 분위별 분포의 변화를 비교하여 소득불평등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Firpo et al.(2009)은 그들의 연구에서 재중심 영향함수(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RIF)를 제안하였는데, 이를 통해 특정 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 즉 근로소득의 무조건부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RIF는 종속변수인 근로소득 분포로부터 얻어지는 특정 통계량(예

컨대, 분위수)에 대해 개별 관측치가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영향함수(Influence Function: IF)를 포함한다.

RIF를 활용하면 선형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비임금근로자 비중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RIF-선형회귀모형을 설정하면, 설명변수가 RIF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RIF_{\tau, y_i} = \alpha_{\tau} + \beta_{\tau} X_i + \varepsilon_i$$

여기서  $\beta_{\tau}$ 는 설명변수  $x$ 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무조건부 분위수  $q$ 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한계효과를 의미한다.

## 2. 분석자료

본 분석에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사이의 소득분포의 차이 및 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1차년도(2018년)~24차년도(2021년)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KLIPS는 가구의 소득자료와 가구구성원의 인적특성에 관한 자료와 함께 개별 가구원의 인적 특성 및 고용상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국규모의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이상호 외, 2014), 본 연구와 같은 분석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만 64세 이하의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취업자의 시간당 소득액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시간당 소득액은 KLIPS가 제공하는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월평균소득을 월근로시간(주당 근로시간  $\times$  4.3)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본 분석의 핵심 설명변수인 비임금근로자 여부 변수는 비임금근로자(고용주, 자영자)이면 1, 아니면(임금근로자) 0의 값을 갖는 이산변수이다. 이외 추정에 사용된 설명(통제)변수들의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설명

변수명	변수 설명
비임금근로자 여부	비임금근로자(고용주, 자영자)이면 1, 아니면(임금근로자) 0
연령	만 나이
연령제곱	만 나이의 제곱값
교육수준	4개의 범주(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로 구분
혼인상태	3개의 범주(미혼/유배우자/이혼·사별)로 구분
거주지역	6개의 범주(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강원제주권)로 구분
잠재경력년수	= 만 나이 - 교육년수 - 6
잠재경력년수 제곱	잠재경력년수의 제곱값
6세미만 자녀수	6세 미만 자녀의 수
6~18세 자녀수	6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의 수
월평균 생활비	가구의 지난 해 월평균 생활비(로그 만원)
배우자 소득	배우자의 월소득(로그 만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0
산업	7개 범주(농림어업/광공업/유통서비스업/생산자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기타)로 구분
직업	5개 범주(관리·전문직/사무직/서비스·판매직/생산직/단순노무직)로 구분
근속년수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년)
근속년수 제곱	근속년수의 제곱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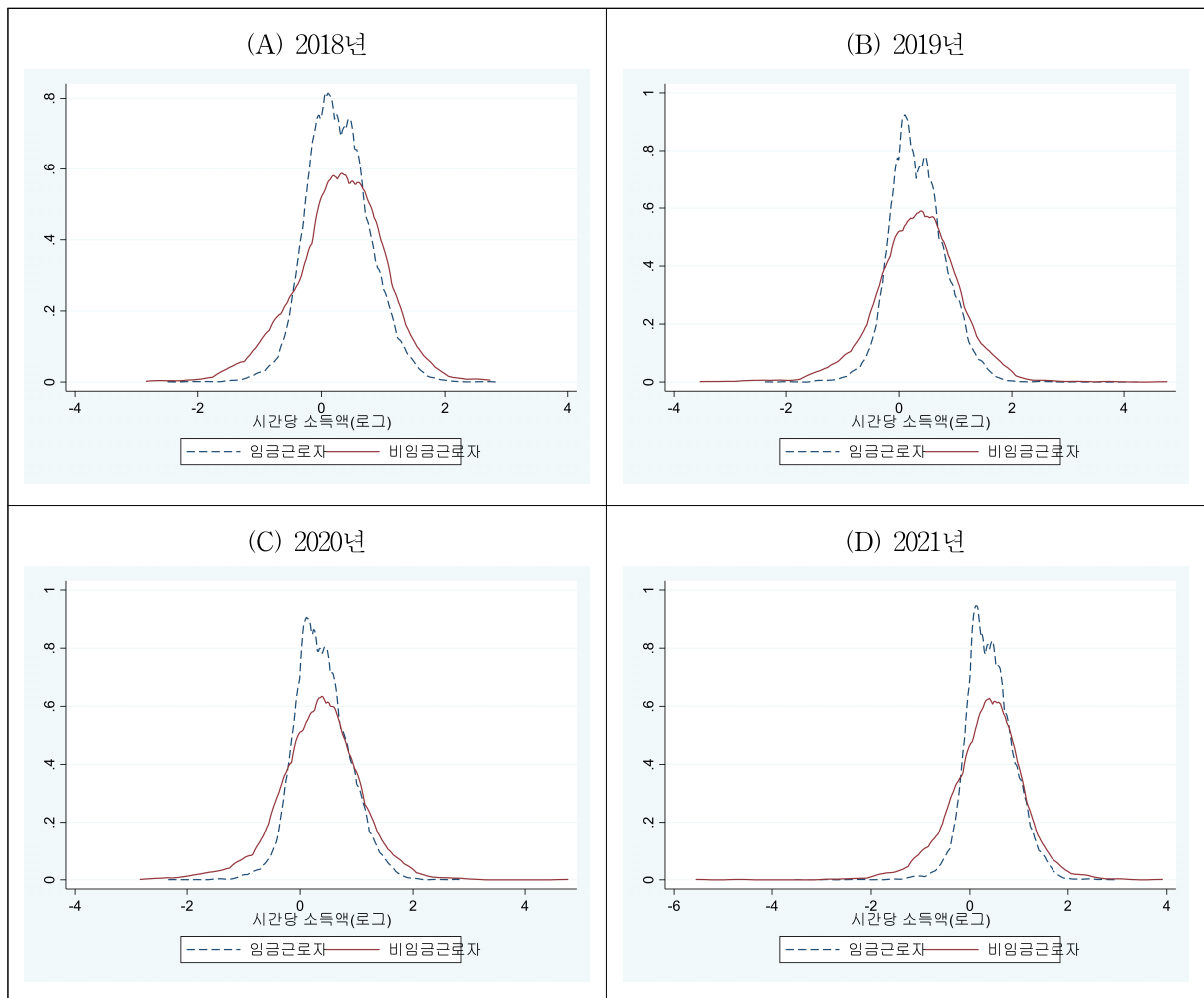
- 주: 1)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하며, 임금근로자는 상용 + 임시 + 일용근로자를 의미함.
- 2)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충청권은 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은 광주·전북·전남, 대경권은 대구·경북,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권은 강원·제주를 의미함.
- 3) 표준산업분류(9차개정) 대분류 기준으로, 농림어업은 A(농림어업), 광공업은 B(광업) + C(제조업), 유통서비스업은 G(도매 및 소매업) + H(운수업), 생산자서비스업은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K(금융 및 보험업) + L(부동산업 및 임대업) +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N(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은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P(교육서비스업) +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U(국제 및 외국기관), 개인서비스업은 I(숙박 및 음식점업)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T(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기타는 나머지 산업부문을 의미함.
- 4) 표준직업분류(6차개정) 대분류 기준으로, 생산직은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8(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을 의미함.



### 3. 분석결과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지난 4년(2018~2021년)간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시간당 소득액의 분포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연도에 상관없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소득액은 평균 주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소득액은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임금근로자에 비해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소득격차가 최근으로 올수록 저소득층에서는 벌어지는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유지되거나 다소 줄어들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지난 4년 중 최근 2년동안에는 코로나19 위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이러한 소득격차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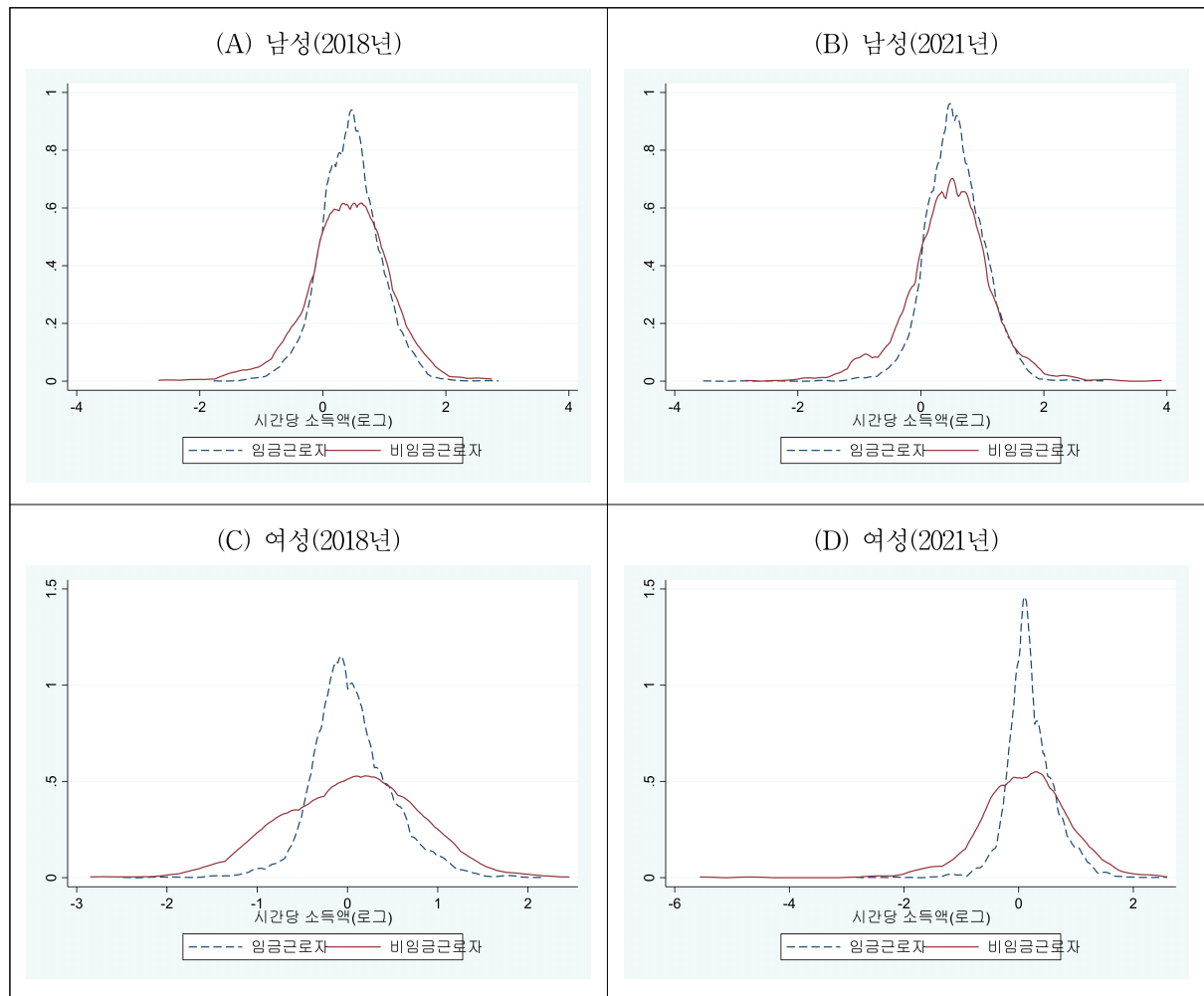
[그림 1]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 전체 근로자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1차년도(2018년)~24차년도(2021년) 학술대회용 자료.

[그림 2]는 2018년과 2021년 사이의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소득액 분포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 구분하여도 비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소득액 분포가 임금근로자의 분포보다 넓게 퍼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남성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두 집단 사이의 시간당 소득액 분포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2018년과 2021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 저소득층에서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즉 소득분포 밀도함수의 꼬리가 길어지는(두꺼워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에 변화가 야기되었으며, 이는 성별로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 성별 비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1차년도(2018년)~24차년도(2021년) 학술대회용 자료.

<표 2>는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시간당 소득액 수준의 차이를 분위별로 보여주고 있다. 분위별로 소득 수준의 차이가 다르게 추정되는 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사이의 소득격차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연도별로도 소득격차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사이의 소득격차가 저소득층에서는 확대되고 고소득층에서는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지난 2년(2020~2021년)동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자영업 부문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 전반적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가 임금근로자 대비 하향 이동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결과: 임금근로자 Vs. 비임금근로자

종속변수: 시간당 소득(로그 만원)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비임금근로 여부 (임금=0, 비임금=1)	2018년 (N=10,010명)	-0.122***	0.058***	0.091***	0.140***	0.157***
	2019년 (N=9,612명)	-0.118***	-0.014	0.071***	0.108***	0.166***
	2020년 (N=9,301명)	-0.214***	-0.038**	0.045***	0.031	0.109***
	2021년 (N=9,287명)	-0.247***	-0.004	0.050***	0.043**	0.082***

주: 1) 통제변수로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역, 잠재경력년수, 자녀수, 월평균 생활비, 배우자 월소득, 산업, 직업, 근속년수 등을 활용함.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1차년도(2018년)~24차년도(2021년) 학술대회용 자료.

<표 3>과 <표 4>는 성별로 구분하여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소득액 수준의 차이를 분위별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가 하향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에서는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소득액 수준의 차이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고소득층에서는 그 차이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의 크기에는 성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남성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격차 확대보다 고소득층의 격차축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반대로 저소득층의 격차확대가 고소득층의 격차축소보다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자영업 부문 매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성별 및 소득수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결과(남성): 임금근로자 Vs. 비임금근로자

종속변수: 시간당 소득(로그 만원)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비임금근로 여부 (임금=0, 비임금=1)	2018년 (N=6,074명)	-0.052	0.02	0.072***	0.133***	0.180***
	2019년 (N=5,809명)	-0.153***	-0.026	0.036*	0.099***	0.152***
	2020년 (N=5,620명)	-0.146***	-0.046**	0.018	0.091***	0.137***
	2021년 (N=5,604명)	-0.168***	-0.047**	0.021	0.089***	0.074**

주: 1) 통제변수로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역, 잠재경력년수, 자녀수, 월평균 생활비, 배우자 월소득, 산업, 직업, 근속년수 등을 활용함.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1차년도(2018년)~24차년도(2021년) 학술대회용 자료.

<표 4>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결과(여성): 임금근로자 Vs. 비임금근로자

종속변수: 시간당 소득(로그 만원)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비임금근로 여부 (임금=0, 비임금=1)	2018년 (N=3,936명)	-0.375***	-0.059**	0.087***	0.231***	0.325***
	2019년 (N=3,803명)	-0.257***	-0.074***	0.038**	0.181***	0.278***
	2020년 (N=3,681명)	-0.407***	-0.112***	0.011	0.102***	0.128**
	2021년 (N=3,683명)	-0.457***	-0.154***	0.022	0.173***	0.218***

주: 1) 통제변수로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역, 잠재경력년수, 자녀수, 월평균 생활비, 배우자 월소득, 산업, 직업, 근속년수 등을 활용함.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1차년도(2018년)~24차년도(2021년) 학술대회용 자료.

## IV.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격차 수준은 어떻게 다른지를 소득분위별로 추정해보았다. 지난 4년(2018~2021년)동안의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가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성별로 구분한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의 변화가 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의 차이를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격차가 저소득층에서는 음(-)의 수준이고, 고소득층에서는 양(+)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4년동안 저소득층의 소득격차는 확대된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격차는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위기로 야기된 부정적인 영향의 결과인 것으로 유추된다. 아울러, 소득수준별 소득격차의 변화가 성별로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소득격차 확대보다 고소득층의 소득격차 축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반대로 저소득층의 소득격차 확대가 고소득층의 소득격차 축소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위기가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남성의 경우에는 고소득 비임금근로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저소득 비임금근로자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을 각 연도별로 횡단면 분석을 수행하여 추정계수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써, 비임금근로에 대한 선택 및 이로 인한 선택편의 등은 고려되지 못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개인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적인 효과 등을 통제하는 고정효과 패널모형(고정효과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을 활용한 분석이 추가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가구 단위의 근로형태의 조합에 따른 소득분포 및 소득격차 등은 분석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가구 단위에서 비임금근로자의 역할이 성별로 상이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종사상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소득이 있는 비임금근로자(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에 가구 내 배우자(남편) 또는 다른 남성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인지 아닌지(비임금근로자인지)에 따라서도 가구 단위 소득수준 및 그 변화 등은 상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가구 단위 근로형태의 조합에 따른 소득분포 및 소득격차 분석이 보다 면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금재호 · 김기승 · 조동훈 · 조준모(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 I ): 자영업의 변화 추이와 특성』, 한국노동연구원.
- 금재호 · 류재우 · 전병유 · 최강식(2003),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근주 · 고영우 · 김영아 · 윤자영(2019), 『여성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황과 정책적 개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김기승(2006),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경제현안분석』 제8호, 국회예산정책처.
- 김복순(2014), 「자영업 고용 구조와 소득 실태」, 『월간 노동리뷰』 2014년 5월호(통권 110호): p.67-79.
- 류재우(2004), 「자영업 부문의 소득기회와 선택성」, 『경제학연구』 52(2): p.5-32.
- 류재우 · 최호영(1999),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1): p.109-140.
- 문유경(2002),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과 취업력」, 『한국인구학』 25(2): p.69-105.
- 성지미(2002),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논집』 25(1): p.161-182.
- 이상호 · 성재민 · 신선옥 · 이지은 · 윤미례 · 이혜정 · 박진(2014), 『제15차(2012)년도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전병유(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3): p.149-179.
- 전용석 · 김두순(2004), 「비임금근로자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편 『한국의 고용구조, 2004』 중 제8장: p.263-293,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최강식 · 정진욱 · 정진화(2005),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 분위회귀분석」, 『노동경제논집』 28(1): p.135-156.
- 최강식 · 정진화(2004), 「성별 소득격차의 분해: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비교」, 『경제학연구』 55(4): p.217-241.
- Fields, G. S.(1987), “Measuring Inequality Change in an Economy with Income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26(2): p.357-374.
- Firpo, S., N. M. Fortin, and T. Lemieux(2009),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s,” *Econometrica* 77(3): p.953-973.
- Heckman, J. J.(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p.153-161.
- Hundley, G.(2000), “Male/Female Earnings Differences in Self- Employment: The Effects of Marriage, Children, and the Household Division of Labor,”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4(1): p.95-114.
- \_\_\_\_\_ (2001), “Domestic Division of Labor and Self/ Organizationally Employed Differences in Job Attitudes and Earning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2(2): p.121-139.